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 베트남여성을 대상으로 -

The A Case Study on the Adjustment of Family Living Culture in Relation to Women
Who Have Immigrated Through Marriage
- Vietnamese Women in Seoul -

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과
교 수 이 애 련*

Dept. of Social welfare, Gachon Univ.
Professor Lee Ae Lye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adjustment of family living culture in relation to women who have immigrated for marriage. Specifically, it sought to determine how Vietnamese immigrant women understand and adapt to the culture of family life in Seoul, Korea. Th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from 2 May to 30 May 2014, with 28 Vietnamese immigrant women as participants. Personal, family, social, and cultural factors affecting family life and culture were considered. It was determined that Vietnamese women can easily adapt to life in Korea to provide; the results of the material analysis are described below.

First, Vietnamese immigrant women are satisfied with their economic life in Korea. In Vietnam, women have the right to marry Korean men if they want to. Vietnamese women are encouraged to marry want to marry a Korean man. Because they are satisfied with the present marriage.

Second, migrant women learn to adapt to South Korean culture and food. However,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a woman's husband and mother-in-law can become a

* 주저자, 교신저자: 이애련(haeng@gchon.ac.kr)

source of conflict.

Thir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easily accept Vietnamese people, since they are educated to do so through their Vietnamese mothers. Vietnamese woman wants to teach their children the Vietnamese food and culture.

Fourth, the Vietnamese immigrant women also participate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communities. They want to become productive members of society through employment opportunities in South Korea.

Fifth, the cultural and welfare policies of the government should be carried on so that migrant women are able to study cultural adaptation.

This case study examined difficulties that Vietnamese immigrant women have in adjusting to life and culture in Korea. The findings could be used as a resource to help Vietnamese women living in Korea.

Key Words : 결혼이주여성(female immigrants through marriage), 가정생활문화(family living culture), 문화적응(cultural adaptation)

I. 서론

통계청자료(2014)에 의하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이민자 건수가 총 149,500에서 베트남이 39,573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중국이 35,761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은 불과 10년 만에 3배의 증가를 보이며, 국제결혼 중 74.8%가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인 결혼이주여성이다(이영실, 2012).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국제결혼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베트남전쟁 등의 이유로 한동안 단절된 상태였다. 하지만 1992년 국교가 다시 재개된 이후 국제결혼도 재개되어 최근 몇년 사이에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9년을 전후해서 베트남여성은 한국남성의 배우자로서 의미 있는 집단으로 등장했다. 특히 그 수는 2000년부터 놀랄만큼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2년 사이에 33배나 증가하였다.(하밍타잉, 2005).

한국에서 국제이주여성과의 결혼은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한두 번의 만남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김은경, 2008).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문화적응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부부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고은주, 2009; 김양희, 2007; 김오남, 2006; 이영선, 2008) 결혼이주여성의 부부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문화양식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치관과 사고방식, 가치체계가 변하고 있다. 또한 언어부족에서 오는 자녀교육의 어려움, 교육기관에서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문화 부적응, 사회적인 가치관의 상이에서 오는 편견이나 차별이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 다른 두 문화 사이의 적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차성란, 2009).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서 갈등이 야기되는 현실을 직시한 베트남정부의 규제로 무책임한 국제결혼 알선기관을 단속을 정비하고, 결혼 비자 발급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현지에 국제결혼 담당자를 파견하며 베트남신부

들에게 적극적으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남부가 한국어와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들어오는데 반해 한국남편들은 베트남에 대해 거의 모른 채 결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조선일보 2009) 나타나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여성과의 결혼하기 위해서는 한국남성이 2회 이상 베트남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2).

한국도 이제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인정하여야 하며 결혼이주여성에게 일방적인 한국문화를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이며 배타적인 성향은 국제결혼가족의 문제를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만 보려는 경향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성과 다문화가족이 갈등과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많은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물질적 비용이 들지 않는 국제결혼을 이주방식의 하나로 선택하고 있지만 기대했던 삶과 실제적인 삶의 차이를 깨닫게 되면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최의신, 2008). 특히 베트남 여성의 결혼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김현재, 2007), 베트남 국제결혼 가족의 실태와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최의신, 2008), 베트남 국제결혼가족의 적응에 관한 연구(하밍 타이, 2005; 염혜경, 2008) 등 등 최근의 다문화가족 중 베트남 국제결혼가족을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결혼이주여성 집단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보기 보다는 그들의 출신국가, 국내 거주 지역에 따라 한국사회 적응에 차이점을 두어야 한다(홍달아기, 2012). 최근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결혼이주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한국생활에 적응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들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른 두나라의 생활 및 문화 차이에 대해 어떻게 적응하는지 또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다문화사회 베트남여성들이 한국의 가정생활문화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지원 방안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실태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남성과 시댁식구들로 부터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고 피부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제적, 성적, 문화적 측면에서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열등감과 왜곡된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인의 국적을 취득했지만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역할의 차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고립되어 살고 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 한 한국인 남편은 결혼 전에 외국인 아내와의 문화적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결혼 후에도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면서도 본인은 배우자 국가의 문화를 배우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문화가족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문화 차이에 있고, 적응의 핵심도 문화적차원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홍달아기, 2012; 홍성희, 2012)가 있다. 최근들어 베트남여성들의 국제결혼이 증가함에도 한국사회는 상대국의 문화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한국사회의 일방적인 동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베트남아내에게 한국어, 한국요리, 한국문화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신유경, 2010). 즉 한국인 남성들이 동남아 출신여성들을 선택하는 동기 중 하나는 같은 동양권이라는 동질적이고

혈통적인 기대와 함께 한국의 가부장적인 생활양식을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강기정 외, 2009).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부 및 자녀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일으켜 상호간 갈등으로 발전하게 되며 부부의 갈등요인 중 문화적요인이 가장 크며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이영실, 2012). 국제결혼의 문제는 문화와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두 번의 만남을 통해 결혼을 결정하는 국제결혼의 구조(최송식 외, 2008)에서 시작되며 의사소통의 문제와 이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주류사회로의 통합의 어려움, 고립,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문화의 부적응과 갈등 등으로 심화되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및 한국생활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결혼 초 한국인 남편들은 가부장적이고 남녀 차별적인 성역할인식으로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을 도와준다는 인식조차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시어머니는 가부장권과 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의 적응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딸과 아들을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딸의 출생을 환영하는 문화가 지배적임에도 여전히 베트남 국제결혼가족은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한국 시부모의 태도는 베트남 며느리와 갈등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신유경, 2010). 이는 동일한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베트남은 남아선호사상이 심하지 않은 반면, 한국의 남아선호사상은 베트남 국제결혼가족의 갈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가치관 차이로는 베트남에서는 아들과 딸이 구분 없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으로 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경제활동을 통해 부모님을 원조하고, 결혼한 언니의 생활비나 조카의 학비를 대주는 베트남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홍성희, 2012). 특히 서로 다른 결혼문화는 베트남 여성

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한국남성들은 전통적인 베트남의 혼인풍습과 여성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여 결혼 초기부터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증가되던 초기에 한국남성들은 베트남 아내를 ‘사왔다’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가정폭력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베트남의 모계중심사상에서 비롯된 혼인풍습으로 남성이 여성의 집에 사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중매업체의 개입으로 베트남과의 국제결혼이 성행하면서 베트남의 전통적인 혼인풍습을 대리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남성의 사례금 지급은 그릇된 편견을 확산시켰다(신유경, 2010). 이와같이 한국과 베트남의 서로 다른 혼인풍습의 차이는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억제하는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한국이 성숙한 세계화를 기대한다면 국제결혼 여성들에게 일방적인 동화만을 강요하는 것은 근본적 해답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즉 베트남아내와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에 대한 사회·정책적지원과 함께(신유경, 2010), 상호 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통해 이와같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없애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장진경, 2010).

2. 베트남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이해

오늘날 베트남문화는 외래문화와 민족문화, 공동체문화와 개인문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채옥희·홍달아기, 2006), 베트남 전통은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낮았으나 오늘날에는 가족 내에서의 부부는 평등하게 변화하고 있다(유인선, 1999). 한국과 베트남의 지배적인 가치관의 인식주문화, 명절 및 축제문화, 효와 가부장제문화, 의례문화, 공동체문화, 자녀교육을 기반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개인과 가족 차

원에서 문화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주체적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문화적 접근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오윤자, 2008).

1) 베트남의 의식주문화

베트남의 의생활로 여성들은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주로 입으며 아오자이와 함께 베트남 여인의 상징인 야자 나무 잎 모자는 ‘농’이라 불리며, 우산, 양산, 부채로 쓴다. 식생활로는 베트남의 기본이 되는 음식인 껌(밥)이 있으며 짜조, 반미, 썸(쌀국수), 고이꾸온(월남쌈) 등이 유명하며 음식의 가지 수가 적고,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사용한다. 한국과 베트남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쓰는 것은 같지만 음식의 가지수가 많고 음식만드는 방법이 다양한 한국의 식생활문화는 베트남과 많은 차이가 있어 가정생활 적응에 어려운 요인으로 나타났다(양선화, 2004). 주생활로 베트남 인구의 약 20%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열대성 기후인 베트남에서는 수상가옥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2) 명절 및 축제문화

베트남의 명절인 음력 1월1일 땃(Tet)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명절로서 초하루에는 이웃들을 방문해 서로 덕담을 나누고 복을 기원하며, 어린이들에게는 세배돈이 주어진다. 베트남이주여성들은 한국의 설날에 시부모님께 세배를 하며 자녀들과 한복을 입고 떡국을 먹는 것으로 베트남과 비슷한 한국 명절에 대해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쫄투인 음력 8월 15일은 한 해 내내 쌀이 나서 쌀을 거둬들인 것에 감사하는 뜻 보다는 농사짓기에 바빠 돌보지 못한 아이들한테 잔치를 열어주는 뜻이 더 크다. 베트남인들은 전통적으로 짝수를 선호하며 3명이 함께 사진을 찍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베

트남의 전통가무와 중국의 가극이 결합된 무대 예술로 현재 희극, 비극, 풍자극 등 약 600여 편이 전해지고 있다(계선자, 2011).

3) 효와 가부장제문화

유교문화권의 영향으로 인한 베트남의 조상숭배문화는 한국가족생활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신유경, 2010). 부모가 살아 있거나 연로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자식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은(부썸투이, 2006) 우리나라의 가족의례와 같은 점이 많다. 유교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은 집안의 어른과 남편을 공경하고 자신을 낮추는 문화에 익숙하다. 특히 가부장제는 농경사회의 오래된 관습으로 유교를 받아들인 이후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했다(부썸투이, 2006). 베트남의 가부장제 관습은 가족주의의 영향에서 기인하며 한국사회의 가족주의와 가부장제의 순응은 두 나라간 공통문화를 공유하기에 유리하다(신유경, 2010). 베트남의 노부모부양이나 제사의식에 대한 이해는 한국사회의 적응에 유리한 요인이다. 베트남이주여성의 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는 요인으로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가족 중 시어머니의 영향력이 많은 한국의 가정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노부모부양이나 제사의식과 같은 문화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베트남 전통적 문화생활에 있어 가족과 친척들에 대한 의무가 강하게 작용하는 측면을 보여준다(황귀연, 1999). 특히 자식이 부모에 대한 도리를 ‘부모가 젊었을 때, 늙었을 때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세 단계로 구분하며 부모가 비교적 젊고 일을 할 수 있을 때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부모에게 대드는 경우가 매우 적고,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은 불효(不孝)라고 여겼다.

4) 베트남의 의례문화

베트남과 한국은 가족의 생성을 의미하는 혼인과 관련된 풍습 및 전통에 차이를 보인다. 오늘날 베트남의 조혼풍습, ‘놉째오’는 대부분 사라지고 있으나 한국의 혼인풍습과는 차이를 보인다(신유경, 2010). 베트남에서는 결혼 평균연령이 남자 28세, 여자 24세로 주변 다른나라들에 비해 늦은 편이며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의 성씨를 따르게 되며 혼인 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내야 한다. 신랑이 낸 돈은 신부마을에 길을 닦거나 우물을 파는데 쓴다.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결혼비용은 초기에 1,200만원 정도로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신부와 결혼할 때 중매업체에 내는 돈으로 인해 결혼 후 부부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채옥희, 2012). 혼인식 때 신부는 은빛, 신랑은 푸른빛의 화려한 아오자이를 입는다. 원래 전통 혼인식을 올리기까지 여섯 단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간단해 졌다. 또한 결혼연령은 농촌에서는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 못하는 딸은 16세부터 결혼시키려는 부모가 많으며 결혼 상대자와 연령차이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채옥희 외, 2007), 이는 베트남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과의 나이차이가 많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베트남의 공동체문화

베트남인들은 일생을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와 결부되어 생활하면서 베트남인들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공동체를 지향하는 민족으로서 베트남 아내들과의 모임은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해소하는 분출구가 되고 있다(신유경, 2010).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요인 연구에서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 절친한 모국인 친구, 모국인 친구만큼 가깝게 지내는 한국인 친구 등과 같은 사회적 연결망이 있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먼 타국에서 온 베트남 여성들이

동일민족과의 모임이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완화시키는 방법인 반면 시어머니와 남편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신유경 외, 2010). 또한 인간관계의 경우 베트남 사람들은 화목한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대화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몹시 꺼린다. 개인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부정적인 대담도 잘하지 않으며 항상 겸손하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다. 베트남인들은 남의 말을 들을 때 자주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자(Da)”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계선자 2011).

6) 자녀교육

베트남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화되어 있어 유아원과 유치원이 잘 발달되어 있다.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하러 나가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시골에서는 농사일로 도시에서는 시장에서 일하거나 장사를 하는 등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남성보다 더 활발하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의 경우에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베트남의 도시생활은 한국처럼 매우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가정에서의 교육도 도시는 부모의 바쁜 일상 때문에 자녀교육의 많은 부분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고, 시골의 경우 부모가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학생들이 영어와 수학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으며 특히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영어학원을 보내고 있다(김승희, 2012).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은 자녀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 한국어공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를 못하면 아무 것도 못하므로 자녀교육 뒷바라지에 한국어교육은 중요한 동기가 된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이르게 되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이들에게 큰 과제가 되고 있다(차성란, 2011).

3.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 적응 (개인, 가족, 문화·사회)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생활적응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의 규정이 없이 주로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소수가 진행되고 있다. 가정생활적응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결혼적응 및 부부적응 그리고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수단으로 이주여성 자신의 인적·물적자원으로 구성된 개인적자원, 국제결혼

으로 형성된 가족구성과 가족관계로 부터 파생된 가족자원, 그리고 가족 외부의 지역사회 국가로 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홍성희, 2013). 김현숙(2010)의 실증분석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수준이 높을 때 결혼만족과 부부간 애정은 높은 반면, 이혼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의사소통수준이 결혼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가족 자원 중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만족과 부부간 애정이 높게, 이혼의도는 낮게 나타나, 배우자의 지지가 이주여성의 결혼적응을 도와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시

(표 1) 베트남결혼이주여성 심층면접 질문내용

연구 문제	주요영역	질문내용
개인적인 요인	1. 부부적응도 2. 생활지지도 3. 생활적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에 대한 가치관 . 경제생활정도 . 결혼생활만족도 . 한국생활에서 어려운 점. 불편한점 . 현재 적응상태
가족적인 요인	1. 부부관계 2. 시부모 관계 3. 자녀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과 초기 적응시 어려웠던 점 . 남편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정도 . 가족생활(남편, 가족)에 만족정도 . 가족행사(어버이날) 대하여 . 시부모동거여부 . 시부모로부터 받은 도움 . 자녀에게 모국의 문화교육 . 자녀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는 교육
사회적·문화적 요인	1. 사회적 차별 2. 이웃과 친구 3. 지역사회지원 4. 한국어 교육습득 5. 사회,국가의 다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에 대한 차별 . 모국인 모임 참석여부, 모국인 친교모임을 통한 지원 . 사회지지 집단- 대화내용. 도움내용 . 모국인 친구에 대한 남편의 의견 . 정부기초단체, 지역사회로부터 지원(한국어교육, 가정생활문화, 취업에 필요한 교육) . 언어극복(한국어 능력, 배운 기관, 배운 방법) .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기관 및 내용 . 관혼상제 . 음식문화 . 전통문화

출처: 채옥희·홍달아기·송복희(2009). 몽골결혼이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적응사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4), 171-192.

부모 특히 시어머니는 이주여성에게 자원으로 작용되기 보다는 갈등원으로 나타나고 있다(홍성희, 2013).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모국문화에 대한 비하, 자녀교육의 주도권 쟁탈, 전통문화고수를 둘러 싸고 이주여성들은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수연 외, 2011). 이와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이 바라는 가족의 지지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홍성희, 2013). 베트남여성들은 입국후 처음 접하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 아니라 문맹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실까지 가서 배우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홍성희, 2013).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빠른 시간에 한국어 또는 직업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차성란, 2011). 하지만 사회적 지지망의 부족, 사회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보소외로 인한 사회참여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주, 2007). 결혼이주여성들은 지역 환경과 활발히 상호작용을 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한국생활에 빠른 속도를 적응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홍성희, 2013).

<표 1>은 베트남이주여성 심층면접 질문내용으로 아래와 같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은 한국가족생활적응에 있어 기후, 음식, 관혼상제 등 풍습과 문화가 다른 데서 오는 혼란이 가족생활전반에 나타난다고 하였으며(양선화 외, 2004),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준비과정 없이 혼인을 통해 입국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초기부터 다

양한 사회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최금해, 2006).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 생활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로는 결혼이주여성 가정생활 및 생활적응(채옥희·홍달아기, 2009), 결혼생활적응(추현화, 2008), 사회문화적응 및 적응 유형(최혜지, 2009), 적응전략(김희주·은선경, 2007),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연구(김민정 외, 2006),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 문화이해 및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이애련, 2010)를 근거로 개인적인 요인, 가족적인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파악한다. 둘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파악하고 한국생활적응에 대한 문제인식과 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무엇인가?
- (2)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요인은 무엇인가?
- (3)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은 무엇인가?

2. 조사대상

조사대상자는 서울시 한배문화센터와 K시, S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베트남여성을 중심으로 28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결혼이주여성을 선정하였다. 첫째는 한국어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며, 둘째는 한베문화교류 및 K, S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가정생활 및 적응에 대한 사례연구를 원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한국의 가정생활문화와 자신의 나라에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하기 이전에 한베문화교류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실시하였다. 면접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결혼성립과정, 현재 결혼생활의 어려운 점, 한국생활에 대한 경험이나 의견,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 한국의 전통문화의 좋은 점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였고, 한국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면접 전 연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하였다. 한베문화교류의 면담자와 면담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는 S여대 유학생인 베트남여대생이 질문과 답을 통역해 주었다. K시, S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주여성과 면담시에 한국어가 능통하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이 하였다. 면담시 중간에 질문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베트남언어로 설명하면서 통역하였고, 센터 내 상담실을 이용하여 면담하였다. 하지만 두나라 사이의 의미차이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면담자가 곤란한 답은 하지 않아 깊이 있는 질문은 할 수 없어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조사내용

가정생활문화는 한가족이 가정이라는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생활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한가족이 함께 오래 살다보면 그 가족만의 문화를 가지게 된다. 가족문화는 사회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가족구성원에 이해 적응되며 학습을 통해 전달되는 특성을 갖기도 한다. 또한 문화적응은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 간

에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였다(이애련, 2010).

본 조사내용은 베트남결혼이주여성자신들의 가정생활문화 적응에 관한 내용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부부적응도, 문화적응도, 문화지지도)과 가족적 요인(중점을 두는 자녀 교육, 자녀에게 모국의 문화교육), 사회적 요인(외국인에 대한 차별, 사회지지집단, 한국생활에서 어려운 점,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부기초자치단체의 복지정책), 문화적 요인(이레문화인 관혼상제, 음식문화, 전통문화)이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결혼이주여성에게 각 평균 2시간 소요로 2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을 28명을 대상으로 2014년 5월 2일부터 5월 30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가정생활문화에 관해 유목화 된 개방형 질문지(이영세 외 2005), 몽골결혼이민자의 개별 심층인터뷰에 사용된 자료(채옥희, 2009),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 이해 및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이애련, 2010)의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된 개방형질문지를 중심으로 심층면접 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서 면접자의 심층면접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속해 있는 베트남의 생활환경과 한국의 가정생활을 비교해 보고 의식주 생활과 개인, 가족, 사회·문화에 대한 면접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통계적 대표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사례별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맞게 중요한 주제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서울시에 있는 한베문화센터와 K시 S시의 다문화지원센터의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분석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은 20- 30대이며 남편의 연령은 40- 50대이며 30대는(사례1, 20, 22)로 나타났다. 남편의 나이는 50대가 많은 것에 비해 여성의 나이는 30대가 많아 연령차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연령차는 17.5년으로 어린 신부에 비해 한국인 남편은 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의 연령 차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연령 차이는 26세 (남편 50, 아내 24)이고, 가장 차이가 적은 경우는 5살 차이(남편 39, 아내 34)이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은 대부분 주부이며, 회사원 (사례4, 15), 사례 1은 아내가 미성사이며 사례 26은 주부이며 대학생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은 자녀수는 대부분 1- 2명이며, 자녀가 없음 (사례 7, 20, 24, 27, 28)으로 나타났고,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사례 5)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사례 7, 12, 15, 16, 18, 26, 28)로 나타났다. 어버이날 선물로는 선물에는 돈이나 홍삼, 꽃을 선물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은 시부모와 함께 살지는 않지만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을 찾아 뵙고 선물을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사례4는 시부모님을 1년에 한번 찾아 뵈며 어버이날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였다. 특히 베트남 이주여성이 힘들어 하는 것은 관혼상제의 하나인 제사이며 며느리가 음식을 장만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였다. 특히 한국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장만해 놓은 음식을 먹으며 놀이문화를 즐기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한국의 전통문화 중에 하나로 나타났다.

2.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요인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과 안정된 가족생활을 위해 한국인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및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적응, 문화적응과 결혼생활 관련 요인 등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강기정 외, 2009; 김현숙 외, 2010; 오윤자, 2008; 장진경 외, 2008; 차성란, 2009; 채옥희 외, 2009)를 근거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설정하였다.

1) 부부지지 및 적응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박정윤, 2007; 김현재, 2007)에서 밝혀진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문제는 남편을 비롯한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문화차이, 언어장벽, 자녀교육, 편견 및 외로움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결혼후에 집안일과 자녀를 돌보아야 하고, 회사에 일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다 해야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남편이 평등하며 서로 도와준다고 하였다(계선자, 2011). 하지만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한국남성은 문화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성격 탓으로 하는 일이 많아 가족과 부부간의 갈등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아내보다 부모에 대한 효도나 친척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가족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금혜, 2006). 본 연구에서는 결혼을 후회본적이 있고 이혼까지 생각해 본적이 있다(사례 12, 27)가 있지만, 베트남여성에게 한국남성과 결혼을 권장하며 현재의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힘들지만 한국인 남편이 생일선물을 주고 사랑을 해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면접 사례	아내연령	남편연령	아내학력	이주기간	아내직업	자녀수 (연령)	경제 수준	종교	시부모 동거여부
1	34	39	고졸	10년	미싱사	1명(9)	중	무	x
2	28	44	고중퇴	10년	주부	1명(9)	하	무	x
3	36	50	고졸	9년	주부	1명(7)	중	무	x
4	37	54	중졸	13년	회사원	1명(11)	하	무	x
5	29	50	고졸	9년	주부	3명 (8, 6, 3)	중	불교	x
6	34	47	중졸	11년	주부	1명(10)	중	무	x
7	29	43	고졸	5년	주부	자녀 없음	중	기독교	o
8	26	48	중졸	6년	주부	1명(5)	하	무	x
9	30	46	고졸	3년	주부	자녀 없음	하	무	x
10	34	50	중졸	8년	공장	2명 (7, 5)	중	무	x
11	30	52	고졸	5년	주부	1명(8)	중	무	x
12	28	43	초졸	7년	주부	1명(7)	중	무	o
13	32	42	중졸	10년	주부	2명 (8, 6)	상	불교	x
14	27	53	고졸	8년	주부	1명(4)	중	무	x
15	36	50	중졸	13년	회사원	2명 (12, 8)	중	불교	o
16	31	50	중졸	9년	주부	1명(7)	하	불교	o
17	25	50	고졸	4년	주부	1명(2)	하	불교	o
18	30	44	중졸	6년	주부	1명(4)	중	무	o
19	31	47	중졸	11년	주부	1명(10)	중	불교	x
20	23	39	고졸	3년	주부	자녀 없음	하	무	o
21	37	45	중졸	9년	공장	2명(8,6)	중	무	x
22	28	37	중졸	7년	주부	1명(6살)	중	무	x
23	25	43	중퇴	5년	주부	1명(4살)	중	무	x
24	23	48	고졸	2년	주부	자녀없음	하	불교	x
25	31	47	중졸	6년	주부	2명(4,3)	중	천주교	x
26	24	46	고졸	3년	주부(대학생)	1명(3)	중	천주교	o
27	29	53	고졸	2년	휴대폰공장	자녀없음	중	기독교	x
28	29	52	고졸	5년	주부	자녀없음	중	불교	o

주어 고맙다고 하였다

(사례 8, 9, 10, 13, 13, 14).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현실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의지와 노력이 핵심이 될지라도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남편의 배려, 시부모의 문화차이에 대한 인식 등은 다문화가족이 함께 나누어야 할 역할이

있다(장진경 외, 2008). 특히 다문화가족의 남편이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의 남편이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성역할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강기정 외, 2009).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오고 3년 되었을 때 제주도여행을 간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내 생일날 생일선물도 챙겨주고 잘해 주어 좋기는 하지만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처음에는 남편형제들과 서로 노력했지만 관계가 힘들었고, 식사준비에 대한 남편의 태도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가족들과 외식을 자주 하며 남편은 베트남 음식과 월남쌈을 좋아합니다. (사례 3)

남편의 형제들과 왕래가 없고 5월 8일 어버이날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어버이날 선물을 하지 않았고, 1년에 한번 정도 시부모 찾아갑니다. 시부모에게서 받는 도움이 없는 대신 시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한국경제가 베트남보다 나아서 했습니다. 남편이 착실해서 고맙기는 하지만 남편에 대한 불만은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서 정말로 불만이 많습니다. (사례 4)

시부모가 계시지만 1년에 3번 정도 찾아 갑니다. 남편과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지만, 남편과 1달에 1번 정도는 마트에 가기도 합니다. 남편과 결혼 후 친정에 방문한 적이 있으며, 남편이 베트남음식을 잘 먹고 베트남 음식점에도 가끔 갑니다. 하지만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에 선물을 챙겨 주지는 않습니다. (사례 6)

남편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어서 행복하고 좋습니다. 남편형제들과도 잘 지내며 시부모를 모시고 살지만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5월 8일이 어버이 날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어버이 날에 돈은 드립니다. 부부싸움은 남편의 가족문제와 집안문제, 경제적인 것이지만 말이 안통해서 답답합니다. (사례 8, 사례 9, 사례 10, 사례 11, 사례13, 사례 14)

아이를 돌보아 주지 않고 나와 생각이 너무도 다르며 남편이 고마운 점은 별로 없어요.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고 결혼을 왜 했는지 후회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혼도 생각해 본 적이 있

지만 이혼이 쉽지가 않네요. 다른 베트남 사람들은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혼해도 갈 때도 마땅히 없어요. 우리 형제가 한국사람과 결혼한다면 적극 말리겠어요.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나 내 생일날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해서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신경도 쓰이지 않아요. 남편과의 관계는 그저 그런 편이에요. (사례 12)

현재 시누이와 동거하고 있으며 남편의 형제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는 싸울 때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자녀 양육방식에 차이가 너무도 많아요. (사례 15)

남편에 대한 불만은 없고 남편에 대한 고마움은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베트남 음식을 잘 먹으며 본인의 형제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다면 응원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은 한적도 있습니다. (사례 24)

남편에 대한 고마움은 없고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여행, 극장을 가본 적은 없지만 한달에 한번은 백화점이나 마트에 갑니다. 남편은 베트남음식을 안 먹고, 남편으로 부터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선물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 초기 적응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고방식 차이와 언어입니다. (사례 27)

남편이 착하고 집안일을 잘 도와주어 고맙지만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불만입니다. 시부모와 잘 지내며 시어머니로 부터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커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례 28)

2) 가정생활지지 및 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며 부부갈등의 여러 요인 중 문화적요인이 가장 중

요하고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김오남, 2006).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들에게 자신이 결혼하려는 신부나라의 생활풍습이나 문화, 음식문화와 기본적인 언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시부모와 살지는 않지만 제사나 명절에 가사노동의 부담과 함께 가족간의 교류는 결혼이주여성을 힘들게 하고 있으므로 고부갈등으로 힘들어 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도록 가정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시장 등 장보기를 통하여 부부간 대화를 하고, 시부모와 함께 사는 이주여성의 경우는 함께 외출하는 기회를 통해 약간의 자유를 누리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애련의 연구(2010)에서는 식사준비를 도와주는가에 대해 대부분의 한국인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외부활동

이주민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이나 음악, 요리, 축제, 명절, 언어와 같은 것들 중 어떤 부분은 간직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주한 나라에 전달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한국의 성역할이나 남편과 시모의 의존적 관계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문화의 일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응적 태도를 보인다. 채옥희와 홍달아기(2007)의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생활적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의사소통문제이며, 언어문제로 사회생활 및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응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의사소통으로 겪는 문제와 혼란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신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문화가치 안에서 다른 문화를 접촉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 사회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Berry, 2005). 새로운 문화를 익히기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외부활동으로 문화센터에 가는 것에 대한 남편의 반응은 아내가 문화강좌에 가는 것을 적극 권장하나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한국에 강좌가 있는 것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애련, 2010).

(2) 본국사람들과 친교활동

본 연구에서 남편이 본국사람과의 친교를 좋아하지만, 아내가 베트남 사람과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례2, 9, 10, 21, 22). 베트남결혼이주여성들은 자국사람들과의 친교(수다)를 통하여 조국의 외로움을 달래는 것으로 결혼만족도가 낮거나 부부간의 갈등이 클수록 자조모임이 주는 지지와 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주 외, 2007). 심층면접에서 참여자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제한되며, 남편과 시가족을 제외하고 자주 만나거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인 친구들이 거의 없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의 상관관계를 밝혀냈고, 사회적지지 중 비공식적인 지지체계인 의미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본인의 모국문화를 이해해줄 수 있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미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고, 전반적으로 같은 국가 출신의 친구들이나 의미있는 모임과 현지에 사는 사람들의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는 모든 이민자, 체류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영실, 2012).

남편은 베트남 사람과 만나는 것을 싫어하며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도 잘 지내지 않습니다. 베트남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모임에는 자주 나가서 만나며 가족이야기

를 하며 수다를 떨니다. 자주 나가는 베트남 모임은 나에게 한국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베트남 사람들과 하는 수다를 나는 너무 좋아합니다. (사례 2, 사례 9, 사례 10, 사례 21, 사례 22)

남편은 내가 외부 활동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내가 한국생활을 배울 곳이 없어서 남편에게 잠깐 강좌만 받고 오겠다고 했지만 싫다고 해서 외부강좌를 받아 본적이 없어요. 남편이 나이차(16년)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힘드네요. 베트남사람들과 남편이 몇번 만남 적은 있는데 말도 안하고 화 난 사람처럼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자주 모임에 안 나가게 되고 지금은 모임에 가지 않아요. 모임에는 가지 않지만 베트남언니들과는 가끔씩 전화통화는 해요. (사례 19)

베트남사람들이 모이면 자녀교육과 살림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합니다. 베트남음식을 해 먹고 한국사람들이 알뜰하고 절약정신이 강한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사례 26)

(3) 취업희망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직장이 주어진다면 취업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사례2, 7, 21), 한국어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취업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친정에 돈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례26)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애련(2010)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직장이 주어진다면 하겠다고 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친정인 베트남에 돈을 보내는 것이 부부갈등을 일으킬 때에는 대부분 남편이 지원해주지 못하는 대신 아내의 취업과 소득으로 송금을 허용하는 부부 간의 타협으로 갈등을 진정시키기도 한다 (홍성희, 2012).

나에게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장에 다니고 싶습니다. 베트남에서 전공과 직업은 없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원합니다.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나도 기회가 주어지면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친정인 베트남에는 가끔 돈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례 2, 사례 7, 사례 21)

나에게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찰서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센터와 외국인 근로자센터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으며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 이유는 아이들 3명을 잘 키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례 5)

베트남여성들이 하는 직장생활은 공장직원이나 통번역사를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친정에 도움을 주고 싶으며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가장 이루고 싶은 일입니다 (사례 26)

3.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요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관과 생활 태도가 각각 다른 이중문화의 성격을 지닌 국제결혼가정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언어, 풍습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났으며 부모와의 문제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지만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은 베트남에서와 같이 자녀교육을 하고 싶어 한다.

1) 자녀 교육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이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과 자녀에게 베트남 문화를 알리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이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자녀는 한국생활에서 삶의 희망이다. 자녀출산이전에는 외롭고 힘들어 하며 적

응을 못하던 여성들이 자녀를 낳고 나서는 삶의 동기를 찾게 되며 자녀는 한국생활을 하는데 있어 심리적인 거점이 되기도 한다(차성란, 2011).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교육은 엄마가 베트남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고(사례 2), 자녀의 숙제를 봐 주는 것이 힘들지만 대부분의 어머니가 자녀의 숙제를 돌봐주고 한국어 교육을 많이 받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례 3, 13). 자녀에게는 자신의 모국인 베트남 문화교육과 함께 베트남음식을 만들어 먹이고(사례 3, 4, 26), 자녀와 함께 베트남을 방문하여 어머니 나라를 인식시키며(사례 26), 자녀가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이중문화를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교육에 힘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을 떠나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동기에는 2세에게 보나 나온 삶을 이루게 해주고 싶은 꿈이 있으며, 국제결혼이라는 돌파구를 찾는 이유가 된다(홍달아기, 채옥희, 2007)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자녀교육의 어려움은 한국음식을 만들때 입니다. 또한 지금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는 엄마가 베트남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있어서 항상 아이에게 고마워 합니다. 자녀의 학교에서 베트남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엄마가 베트남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아이도 친구를 집에 데려 오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과 베트남의 교육방식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례 2)

자녀는 7살로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의 숙제를 돌봐줄수 있고, 아이가 한국어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인 베트남에 간적이 있으며, 아이에게 베트남가족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 합니다 아이는 베트남 음식인 베트남 쌀국수를 좋아 하지만 아직은 베트남 언어를 아이에게 가르쳐 본 적은 없습니다 (사

례 3)

학교선생님이 엄마가 베트남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아이의 숙제를 돌봐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교육이며 아이에게 베트남음식을 먹여 본적은 있지만, 베트남가족의 이야기를 하거나 베트남 의상을 입혀 본적은 없습니다. 베트남 언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아이들과 놀이동산을 가본 적은 오래 되었습니다 (사례 4)

자녀가 3명으로 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이 어려운 점은 돈이 너무 많이 들지만 지금 주산, 컴퓨터와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으며 아이들이 사이좋게 잘지내고 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선생님과 상담시 말이 안통해서 너무도 답답합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베트남사람 인것을 알고 지금은 좋아하는데 나중에 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베트남의 자녀양육방식과 한국과의 차이가 너무도 많이 다릅니다.(사례 5)

아이가 2명이며 아이의 숙제를 조금 돌봐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학부모들과 대화해 본적은 없습니다. 베트남 고향에 아이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베트남고향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사례 13)

아이에게 베트남언어를 가르쳐 주지만 아이가 잘 안따라 합니다. 한국생활에서 어려운 것은 자녀교육이며 한국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가 본적이 없고 자녀에게 베트남 의상을 입혀 본적이 없습니다. (사례 16)

자녀에게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지만 숙제를 봐주지는 못합니다. 아이가 엄마가 베트남사람인 것을 알고 좋아합니다. 아이에게 베트남언어를 가르치고 베트남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

니다. 자녀의 학교에서 베트남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사례22)

자녀의 한국어교육은 책을 많이 읽어주고 대화를 합니다. 자녀들과 베트남에 방문한 적이 있고 베트남음식을 자녀에게 먹여 본 적이 있으며 베트남 언어를 가르치기도 합니다.(사례 26)

4.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1) 사회적 요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려움은 한국어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과 자녀교육, 취업, 시선, 경제적 어려움, 친구가 없는 것과 외국인에 대해 심한 차별을 듣고 있으며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문적인 기관을 찾아 교육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1) 외국인에 대한 차별

사례 14은 한국사회에서 동남아시아 사람을 인격적으로 차별하며 한국국적이 있음에도 외국인 취급을 하고 외국인이라고 차별을 한다. 사례 16는 남편이 장애인인데 더욱 차별이 심한 것 같다. 출입국에서의 차별이 심하고 특히 비자를 연장 때에는 태도가 달라지며 출입국 사무국 직원들의 불친절은 나라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2) 한국생활에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은 한국생활에 만족하는 것은 경제생활만족(사례15, 18, 23)과 교통수단의 편리함(사례 24)이지만 국적취득의 어려움이 많고(사례 7, 8, 14), 의사소통의 어려움, 쓰레기 수거, 교통이용법의 어려움을 듣고 있으며(사례 18, 23, 24), 한국사람이 동남아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듣고 있다(사례25). 이에련의 연구(2010)에서는

한국인은 모든일에 서두르며 다른사람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을 듣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외국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적으며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느끼는 힘들고 불편 한 점들은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나에게 있어 가장 이루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은 국적취득을 하는 일입니다. 한국어 실력에 자신이 없어 항상 불안합니다. 베트남에서 전공과 직업은 없었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직장에 다니고 싶습니다 (사례 7, 사례 8)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중국적과 가족초청이 안되는 점입니다, 특히 혼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너무도 힘이 듭니다. 중매업체를 통한 결혼보다는 소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사례 14)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은 아이들을 사이좋게 잘 키우며 월급을 많이 주는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생활에는 만족하고 베트남에서는 장사를 했지만 한국에서는 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어에는 자신감이 없어요(사례 15)

한국에서의 경제생활에 만족합니다. 한국에는 좋은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하지만 나쁜사람도 있어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물건 살때 가장 힘든 점은 말이 안통하고 물건의 특징을 잘 몰라서 답답합니다. (사례 18, 사례 23)

한국생활하는데 어려움 점은 쓰레기 수거, 교통이용법, 인터넷으로 물건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며 특히 어려운 것은 대화시 인사에 관한 것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하지만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고 편리하며 기관의 직원들이 친절합니다(사례 24)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낯설게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사회가 편해서 좋고 외출 할때도, 물건 살때도 어려운 점은 없어요 (사례 25)

한국사회에서 좋은 점은 온라인 쇼핑과 모든기관을 이용하기 편한 점이지만 취업과 대출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이며, 의사소통이 안될 때에는 사진을 찾아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합니다(사례 27)

(3) 의사소통

베트남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한국말이 안 통해서 힘든 것은 병원 진료이며 의사소통이 안될 때는 친구나 남편을 부르거나 사진을 가지고 대화를 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문제(홍달아기 외, 채옥희, 2007)는 결혼이주여성의 원만한 부부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 한국어를 배울 때 상대에 따라 존대어 사용법이 어렵고 사투리를 쓰고 말이 빨라서 알아듣지 못할 때 친절히 해주는 배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가 서툴렀을 때 시장에는 외국어 통역을 해 주는 사람이 없어 물건흥정을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경험을 갖고 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너무도 잘되어 있고 좋으며 특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정부의 복지는 너무도 좋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강좌를 받아본적이 있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말이 안 통해서 너무도 답답합니다. 병원에도 자원봉사나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례 3, 사례 9, 사례 10)

한국인은 어떤일이라도 빨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힘든 것은 한국말이며 의사소통이 안될 때에는 손짓으로 하기도 합니다.

(사례 28)

언어로 의사소통이 안될 때에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친구를 부르거나, 남편에게 전화를 하며 사진을 가지고 대화합니다 (사례 22, 24, 25, 26)

(4) 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정책

본 연구에서 지역문화센터에서 강좌를 받아본 적이 있고, 강좌내용은 실용적인 내용이나 언어나 대화, 한국어, 부모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 잘하고 있으며 좋다고 하였지만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례 5, 23). 하지만 사례 2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사례 14는 이중국적으로 베트남동생을 한국에 초청하지 못하는 점을 들고 있다.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생활 적응 및 문화이해, 가족관계 증진, 사회적 연계망 형성 지원, 여성복지 증진, 상담, 취업기술교육 및 일자리 알선, 일반 교육,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실제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일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이선, 2008). 홍달아기 등 (2006)의 사례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교육이 가장 높았으나 배울 곳이 적절치 않거나 거리가 멀다고 하였다. 베트남여성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을 비롯한 친족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그리고 취업을 위한 기본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며 자녀 교육 뒷바라지가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한다(차성란, 2011)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때 말이 안통해서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베트남으로 통역을 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례 3, 사례 10) .

베트남과 한국은 문화 성격, 언어 음식이 달라서 몹시 고생하고 힘듭니다.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외출할 때는 4계

절이 있어 자꾸 바뀌어 옷 입는 것이 힘듭니다. 한국정부의 한국어교육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매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반대하며 방송에서 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은 너무 좋고 편한 것만을 보도하고 있고 우리들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례 5, 사례 23)

2) 문화적 요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은 한국문화를 배워서 한국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베트남문화와 음식을 남편과 자녀에게 알려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음식인 김치 고추장, 된장을 알고 있으며, 설날에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며 우리의 전통민속놀이인 윷놀이를 하며 (사례14, 25) 한국문화를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날에 자신들도 한복을 입고 자녀들에게도 한복을 입혔으며, 한옥마을과 광화문, 덕수궁, 경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례24, 25).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한국문화는 생일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한국음식으로 생각하였고 (사례1), 전통민속놀이인 닭싸움이 재미있는 놀이라고 하였다(사례 24). 하지만 베트남이주여성이 힘들어 하는 한국문화는 제사로 제사음식 장만은 자신들을 지치고 힘들게 한다고 하였다(사례14, 27). 관혼상례중 관례, 혼례, 제례, 상례는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례이며(김양희 외, 2009) 한국생활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한국문화 중 가장 좋은 것은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것입니다. 베트남에는 없는 전통 문화로 한국에 와서 생일날 미역국을 처음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시아버지가 살아 계시지만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라는 것을 알고, 한국사람들과 같이 어버이날에는 시아버지에게 선물로 홍삼을 선물해 드렸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하셨어요(사례 1)

나는 한국의 전통놀이 중 윷놀이가 재미있고, 한복을 입고 세배도 해보았습니다. 특히 설날에 만두 만드는 것은 재미있고, 떡국을 해 먹는 것도 맛이 있습니다. 음식중에서 고추장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사례 14).

한국에 어버이날이 있는 것이 좋고 어버이날에 시부모에게 돈을 드렸어요. 가족과 외식은 고기 구이를 자주하며 한복을 입어 본적은 있지만 경주에 가본적은 없습니다 (사례 18)

한국전통민속놀이 중 가장 재미있는 놀이는 닭싸움인데 베트남에서는 보지 못한 것이라 재미있었어요. 특히 한국문화 중 가장 좋은 것은 인사예절이며 한국에서 가본 유적지는 한옥마을에 갔어요. 설날에 떡국을 먹고 세배를 했지만 한국 생활방식에 있어 베트남과 생활방식에서 가장 차이나는 것은 식사법과 제사와 설날인 것 같아요 (사례 24)

한국의 가장 재미 있는 민속놀이는 윷놀이이며 김치만들기와 제사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복을 입어 본적이 있고 세배를 해 봤어요. 한국생활이 베트남과 비슷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요. 한국에서 가본 유적지는 광화문 덕수궁, 경주를 가 보았어요(사례 25)

한국문화 중 좋은 것은 추석에 송편만들어 먹는 것은 한국의 재미있는 전통입니다 하지만 제사때 머느리가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복잡합니다(사례 27)

V. 결 론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28명을 중심으로 면접을 통한 사례연구이다. 먼저 선행연구

를 통하여 베트남생활문화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베트남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 이주하고 있거나 이주를 원하는 베트남여성들에게 한국가정생활문화 적응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동남아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배경은 베트남생활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한국에서의 질 높은 생활을 동경하여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하는 것을 나타냈다. 하지만 한국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서툰 한국어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국의 가정생활문화의 차이로 결혼을 후회본적이 있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차이(17.5년)가 많음에도 남편이 생일선물을 주고 많이 사랑해 주어 행복하다고 했으며 베트남형제가 한국남성과 결혼을 원할 경우 한국남성과 결혼을 권한다고 하였다.

둘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은 시부모와 함께 살지는 않지만 어버이날에는 선물로 한국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돈이나 홍삼, 꽃을 선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남편과 시어머니로 시어머니는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문화에 적응하도록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가르치며 며느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베트남며느리들은 시어머니로 부터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문화와 자녀출산과 양육, 한국음식 만드는 법과 생활예절을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어머니로 부터 서로 다른 문화차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을 며느리로 맞는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차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며느리를 맞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스트레스와 함께 부부불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어머니도 문화차이에 대한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은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공동체의식이 강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에서 온 베트남이주여성들과 자조모임을 통해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가정생활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며, 시장도 같이 가고,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베트남여성에게 결혼초기에는 통역을 해주는 등 정서적인 지원과 함께 한국생활적응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외부활동, 베트남사람들과의 친교활동, 취업을 위한 지원 등 베트남며느리가 한국생활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셋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교육은 자녀 자신이 다문화가족의 자녀이며 어머니가 베트남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베트남 문화교육과 함께 베트남음식(쌀국수, 월남쌈)을 만들어 먹이고 자녀와 함께 베트남을 방문하여 어머니 나라인 베트남을 인식시키고 있다. 아직은 어머니 자신이 한국어가 서툴러 자녀의 숙제를 돌봐 주는 것이 힘들지만 열심히 자녀교육에 힘쓰고 있다. 특히 한국어교육은 한국생활 적응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자녀와 함께 열심히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보육, 공동체놀이, 통합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이중문화를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교육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두 문화의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적응하며 원만한 인간관계 갖기를 원하고 있다.

넷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의 외로움을 베트남 사람들과의 친교(수다)를 통하여 달래려고 하지만 남편이 본국사람과의 친교를 좋

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베트남은 공동체문화를 가지고 있어 한국에서도 모국여성들과의 잦은 교류와 모임을 가지며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며 지역사회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은 사적네트워크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지원체계를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며 이를 통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차별화 한국어교육과 함께 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취업교육(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술교육) 방안으로 현재생활에서 취업이 된다면 한국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주여성들의 취업기회 제공은 이들이 한국사회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가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적어 불편하지만 현재의 경제생활에 만족하며, 한국사람들은 다문화사람인 자신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한국사람은 나쁜사람보다 좋은사람이 많은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및 다문화지원센터의 다문화복지사업 및 정책에 대해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 이후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이 많아졌지만 신문이나 방송매체에서도 다문화인식 개선과 함께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생활문화 적응에서 어려운 점은 가정생활에서 지지를 해 주어야 하는 남편과 시부모, 친척으로부터 나타나는 한국의 가부장적이며 권위주의 가정생활문화를 들고 있다. 가정생활문화 적응은 이주여성들이 어려워 하는 문제로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방안의 하나로 문화적응을 결혼이주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로 인식하여 이에 대

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기정·정천석(2009).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정생활 적응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153-167.
- 2) 계선자(2011). 다문화사회의 이해. 서울: 신정.
- 3) 고은주(200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가정폭력,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심리 건강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공수연·양성은(2011). 다문화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101-117.
- 5)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베트남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63-169.
- 6) 김승희(2012). 여성결혼이민자가 체험한 교육문화와 문화적응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153-170.
- 7) 김양희(2007). 남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김오남(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9) 김은경(2010). 경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1-12.
- 10) 김이선(2008).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과 소통경험을 통해 본 정신건강의 역동성.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1-129.
- 11) 김현숙(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135-159.

- 12) 김현숙·김희재·최송식(2010).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53-175.
- 13) 김현재(2007). 베트남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 52, 215-254.
- 14) 김혜진(2008). 다문화시대에 따른 가족윤리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김희주·은성경(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에 관한 사례연구-필리핀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33-66.
- 16) 박정윤(2007). 결혼이민자가족생활에 관한 사례연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위한 비전선포. 대한가정학회지 창립60주년기념 통합 포럼 및 기념자료집, 89.
- 17) 부썬투이(2006).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 서울 : 대원사.
- 18) 신유경·장진경(2010).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본 베트남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자원경영학회지, 14(3), 109-122.
- 19) 양선화·양철호·김영자·손순용·심봉관·조지현(2004).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6), 127- 149.
- 20) 염혜경(2008). 베트남결혼이민여성의 적응과정에 대한 생애사적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오윤자(2008). 여성결혼이민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4), 63-77.
- 22) 유인선(1999). 싱가포르: 동남아의 선진복지국가.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23) 이영선(2008).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수도권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이영세·이춘아·강영주·김정아·이순화(2005). 여성결혼이민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기초연구. 문화관광부,문화예술교육, 05-14.
- 25) 이애련 (2010)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문화 이해와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299-321.
- 26) 이영실·조명희·홍성희(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172-194.
- 27) 이은주(2007). 결혼이민여성 부부집단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필리핀여성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9(1), 29-60.
- 28) 조선일보(2009). 베트남신부 남편도 아내나라를 알아야. 2009. 8. 17. 39면.
- 29) 차성란(2009). 다문화가정의 가정생활문화통합의 지향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85-101.
- 30) _____(2011). 결혼이주여성관점에서의 다문화가정 여가생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51-70.
- 31) 채옥희·홍달아기(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61-73.
- 32) _____(2009). 몽골 결혼이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적응사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4), 171-192.
- 33) 채옥희·한은진·송복희(2012).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동기와 한국가정생활 경험 및 지원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111-129.
- 34) 추현화·박옥임·김진희 (2008). 국제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2008 한국가정관리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85-298.
- 35) 최송식(2008).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

- 레스와 부부 적응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53-175.
- 36) 최금혜(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7) 최의신(2008). 베트남 국제결혼가정의 가족생활상태와 가족기능·부부갈등에 관한 연구-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8) 최혜지(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63-194.
- 39) 통계청(2014). 인구동태(결혼이민자). 통계청.
- 40) 하명타잉(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1) 행정안전부(2012).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행정안전부.
- 42) 홍달아기·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 이민자의 가정생활상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43) _____(2007). 국제결혼부부의 가치관과 의사소통유형과 갈등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4), 733-744.
- 44) 홍달아기(2012).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문화적응 단계별 특성-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1-22.
- 45) 홍성희(2012). 다문화가족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전략.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149-175.
- 46) _____(2013). 결혼이주여성의 자원체계와 한국생활적응.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121-145.
- 47) Berry, J. W.(2002). Psychology of acculturation :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Newbury Park, CA: Sage, 232-253.

- 투 고 일 : 2014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4년 10월 6일
- 심사완료일 : 2014년 11월 6일